

역동의 문화도시

싱가포르 현지 리포트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인상깊었던 점은 '눈과 귀가 즐겁다'는 것이다. 특히 필자와 같은 관광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는 곳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선 도시규모가 아담해(?) 편한데다 수준높은 미술관과 공연장, 그리고 다양한 위락시설 등이 경쟁적으로 각양각색의 볼거리를 펼치기 때문이다.

에스플라네이드

편견 없는 다문화 껴안기... 도시 전체가 '문화 백화점'

싱가포르=이묘숙 객원기자

싱가포르 도심에 위치한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아시아의 고유한 역사를 접하고 발길을 돌려 에스플라네이드 공연장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즐긴후 야간에 오차드 거리에서 이국적인 음식과 소풍을 마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일까? 싱가포르 시내를 걷다보면 벽안의 외국인들과 어깨를 자주 부딪힐 만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자지만 강한' 문화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697km²에 불과한 작은 도시국가다. 하지만 경제와 문화부분에서 아시아를 리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품고 담아내는 '아시아 문화의 융광로다'.

하지만 단지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질서 존중만으로 싱가포르를 문화도시라 규정 지을 수는 없다. 싱가포르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예술에서 잘 나타난다. 자유무역항으로서 생산 기반 없이 도시정부가 찾아내는 새로운 생산성은 문화의 산업화였다. 경제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도시로 위상을 날리는 싱가포르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마리나 베이'(Marina Bay)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시청광장 및 중심상업지구와 연계된 123만 헥타의 마리나 베이 지역을 3단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된 미래모습은 '마리나 베이 시티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곳을 시작으로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아시아 문명 박물관',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에스플라네이드 해변극장' 등 거대한 문화벨트가 문화도시 싱가포르의 핵심인프라다.

여기에 '페르나칸 박물관', '싱가포르 우표박물관', '싱가포르 불교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기념관들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전당'인 셈이다. 화려한 랜드마크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아우른 콘텐츠는 매년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관광자원이다.

마리나 베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특이한 모습을 한 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공연장과 한국 건설회사가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다. 에스플라네이드는 열대과일 두리안을 모티브로 2002년에 완공된 종합예술공연장으로 올해 1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 중이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마리나 베이의 모래사장에 견고하게 위용을 뽐내며 새롭게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 옆에는 새롭게 자리한 연꽃모양의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ArtScience Museum, Singapore)'이 있다.

싱가포르는 예술분야 특히 시각 문화 분야에 상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10년 사이 아시아에서 예술문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문화적인 요소의 시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했던 싱가포르는 90년대 말부터 국가 성장 전략을 혁신해 뮤지엄, 컬렉션,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아시아 문명박

물관(Asian Civilization Museum)', 싱가포르 국립박물관(Singapore National Museum),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singapore art museum) 등이 10여년 사이에 완비 되어 가며, 홍콩과 어깨를 겨루는 아트 허브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 바로 아시아 문명 박물관(Asian Civilization Museum)이다. 3층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문명박물관은 진정한 아시아의 모든 문화를 살펴 볼 수는 보고이다. 이와함께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싱가포르 비엔날레 역시 싱가포르의 아이콘가운데 하나다.

이렇듯 싱가포르에는 아시아의 다양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역동적인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말 그대로 여러 나라의 문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라 할 만하다.

근래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그러려면 진정으로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연 문화도시의 시민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묘숙은

전남대 대학원 미술이론 박사 수료,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원을 거쳐 광주비엔날레 도슨트로 활동했다. 현재 송은갤러리 관장이며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다.



123만ha 거대 문화벨트 박물관 등 24시간 볼거리 아시아 콘텐츠 '생생 교육장' 2012 문화도시 광주, 열린의식 필요

아시아 문명 박물관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인터넷 뱅킹 (0.1%를 우대해 드립니다)



에덴스탁론 (주식매입자금 대출)

동양지축은행 TEL. 062-720-0800



임차(전세) 보증금대출



메디칼 대출